

'지각변동' 앞두고 긴장감 팽팽한 학습지시장

신학기 불구 매출 대폭 감소... 교육정책 등 변화에 촉각 곤두세워

출판계 위기 속에 학습참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2월 동안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에 납본된 학습참고서는 예년에 비해 발행종수는 비슷했지만 발행부수는 46% 가량 줄었다. 서울의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종로서적·영풍문고의 경우 학습참고서 매출이 예년대비 30~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학습지 시장을 위축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효과에 따른 가계위축과 교육정책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가계경제가 위축되면서 학습지에 대한 구매욕이 떨어졌고, '헌책 물려주기 운동' 등 사회적 움직임도 한 몫 거들었다. 열린교육, 교육정상화 등을 기치로 내세운 교육정책의 변화 또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습참고서

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새로운 활로찾기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여건과 교육정책의 변화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혼란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지만 나름대로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가계경제 위축으로 구매욕 저하

경제여건의 악화는 학습지 시장을 위축시킨 첫번째 원인이다. 학습지 발행 출판사들은 신학기 매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신학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계경제의 위축으로 학습지 구매욕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교보문고의 위성계 대리는 "예년 비해 매장을 찾는 학생 수는 일정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매량은 눈에 띄일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가계경제의 위축이 빛을 결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증명하듯이 매출이 예년 대비 30%



3월 대란설이 분분한 가운데 지역서점 대부분이 학습지를 경쟁적으로 할인판매, 업계 전체에 걸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가량 줄었다.

예년 수준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출판사가 매출

부진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부진은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국어 및 언어영역 학습지 출판사로 널리 알려진 ㅎ출판사가 부도를 냈다. 자회사에 무리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도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출 부진이 또다른 영향을 주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일일 및 주일 학습지를 주요 영역으로 설정한 ㄷ출판사의 경우 매출이 20% 가량 줄었다. 단행본 학습지의 경우도 50% 가량 줄었다.

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ㄱ출판사 ㄱ편집위원은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대략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3월까지 이어지면 여러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학습지 시장에 3월 대란설이 나돌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그는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학습참고서 출판사 중에 20% 가량이 문을 닫지 않을까 예측하기도 했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적 움직임도 구매심리를 줄이는 데 한몫했다. '헌책 물려주기'로 대변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교과과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행본 학습지 전문 출판사인 ㄴ출판사 기획부 0차장은 "경제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학습지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술에 바이블은 없다"

논술시장 급성장... 진정한 논술대비는 '독서'

94학년도 입시부터 국어시험의 일부로 재개된 '논술' 고사는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부족이라는 주입식 암기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함께 새롭게 부활한 출판계의 '논술도서시장'은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급성장해왔다. 현재 서점가에 '논술'이란 명패를 달고 있는 책은 300여 종. 정확한 판매부수는 합산하기 어렵지만 참고서에 준하는 판매량을 보일 것이라고 서점 관계자들은 예측한다.

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에 논술이 처음 도입된 것은 85년. 이 제도 도입으로 반짝 성세를 누리던 논술시장은 전형방식이 변화자 단 2년만에 서점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난 97년 11월 21일 서울의 12개 대학이 참여한 '대학입학 논술고사에 관한 공동 세미나'에서 대학의 입학관련처장들이 '고전을 증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점마다 고전 코너를 마련 할 만큼 독자들이 늘었다. 서울대에서 발표한 고전 200선은 이미 학생들의

논술공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서목록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책들은 고전을 요약한 책들이다. '꼭 읽어야 할' '고전 베스트' '동서고전' '고교생이 알아야 할' 등의 수식어가 붙은 이런 책들의 대부분은 고전 요약서에 지나지 않는다.

논술관련서는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원고지 작성법부터 시시콜콜 설명한 작문용 도서가 논술도서로 둔갑해 있는가 하면 논리의 개념과 글쓰기 원칙을 중심으로 이론을 설명하거나 유형별로 구분해 논술답안을 작성케 하는 등 그 내용과 형식에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서양의 정치사상·문학·자연과학·심리학 등 학문별 논술 예문을 제시한 책들도 많다. 동서고전을 폭넓게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시험을 위해 일부 내용만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신문기사를 통해 논술문제에 접근하려는

책도 많이 나와 있다. 신문의 칼럼이나 사설이 그대로 논술 교재로 이용되는데, 시사성과 함께 글쓰기의 모양을 빠른 시일 내에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일간지에 게재된 문제들이 단행본으로 묶여져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논술문제를 출제하는 대학 교수들이 집필하는데, '정답은 없다'는 논술의 기본을 무시하고 '모범답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술서적의 문제점으로는 '서론·본론·결론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형식주의' '특징과 개성을 찾아볼 수 없는 논술문의 양산' '모범답안을 외우게 한다'는 점들이 지적된다.

교육개혁위원인 허병두(숭문고 교사)씨는 "논술이 몇 권의 책으로 가능하면 그 책들은 논술 바이블이 될 것"이라면서 "논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을 읽고 직접 글을 쓰는 길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비슷비슷한 기획과 내용의 논술관련서들 속에서도 스테디셀러는 있다. 스테디셀러가 있다는 말은 논술이 '참고서'로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폭넓은 독서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논술 대비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성수>

신학기 특수를 기대하는

학습참고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학습지 시장을 위축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한파에 따른

가계경제 위축과 교육정책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대책 물러주기운동 등

사회적 움직임도 한몫 거들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비한

활로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사교육비 증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던 과외와 학원수강이 줄어들면서 학습지 시장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가계에서 사교육비는 줄이겠지만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학습지까지 줄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학습지 시장의 경쟁대상은 학원이나 과외시장이라고 전제된 ㄷ출판사 ㄷ실장은 “학원과 과외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학습지 시장으로의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했다.

교육정책 변화도 한몫 거들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유동적 요소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교육정책의 변화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화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들어 열린교육, 자율교육, 교육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등을 기치로 내걸고 또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입시에 관련된 정책변화는 학습지 발행 출판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교육부 입시정책 담당자는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자율화 정책에 따른 변화는 필요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학습지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열린교육과 자율교육을 기치로 내세운 초등부의 경우 학습체계가 학교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이동했고, 교재도 시장각 교재를 중시하고 있다. 시험제도 또한 없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학습지 구매욕은 현

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ㄱ출판사 ㄷ이사는 “열린교육 운운하며 시작한 정책이 교육현장에서는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아이들이 책하고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봉으로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시장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을 꼽았다. 즉, 수요가 있어야 창출을 하는데 기획단계부터 부정적 견해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회원제 또는 방문판매를 하고 있는 일일 및 주일 학습지도 판매가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반 및 기초학습을 겨냥한 학습지의 경우는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교과과정에 맞춘 학습지의 수요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ㄷ출판사 ㄷ실장은 “전에 다섯 과목을 보던 초등학생의 경우 최근 두세 과목을 줄인다. 학습지의 실질 구매자인 학부모에게 최소한 기초 과목은 계속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아·초등교육은 교과과정보다는 기초분야가 중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격한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참고서 시장에 더욱 큰 영향을 끼쳤다. 입시정책이 중학교의 경우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는 쪽으로 바뀌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한번 치른 수능으로 대학입시에 제도전할 수 있도록 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까지 시행될 경우 학습지 시장의 위축은 자명하다. ㄷ출판사 ㄷ과장은 “그동안 고입과 수능이라는 초점 아래 학원, 과외, 학습지 시장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수능시험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막막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학입시의 자율화라는 또다른 변수가 발표되면서 출판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본고사의 부활을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정책 담당자는 “그럴 이유는 없다. 교육정상화를 위

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논제는 사교육비 절감에 있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대학마다 어떻게 입학생을 평가할 것인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선별을 위한 제도(시험)는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속이 짝한 학습자료 개발이 활로

학습참고서 시장이 위축되면서 ‘3월 지각 변동설’이 분분하게 들리고 있다. ㄱ출판사 ㄷ이사는 “3월 대란설은 오래 전부터 나돌았다. 3월 말이면 신학기 매출 실적이 대략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매출 부진으로 경영 압박을 받는 몇몇 출판사들이 도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반증하듯이 서울의 대형서점 몇 곳을 제외하고 지역 서점 대부분이 학습지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업계 전반에 걸쳐 피해를 주고 있다. 학습자료협회 이원희 회장은 “정찰제 정착 및 유통원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이원되어 진행되는 상황을 막기는 역부족인 듯싶다. ㄷ서적 ㄷ영업과장은 “할인판매 학습지의 대부분은 지역 총판으로부터 역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판사와 서점의 어려운 입장을 백번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활로찾기를 위해 노력하는 출판사들도 많다. 변수로 작용할 경제여건과 대학교육 정책에 대비한 움직임이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은 준비하는 출판사를 위한 기회의 울림으로 여겨진다. 새로 발표된 교육과정은 2천년부터 2천5년까지 초·중·고등부의 교과과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과정이 바뀌면 그에 따른 부교재 및 학습지도 바뀔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학습참고서 발행 출판사는 벌써부터 이에 대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ㄱ출판사 ㄱ편집위원은 “당장 닥친 현실이 어렵지만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살린 학습지를 개발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속이 짝한 학습자료를 개발하면 독자 스스로 찾아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오완진 기자

저자 초대

“논리교육은 민주인간의 밑거름”

《증명과 설명》외 펴낸 김광수 교수



논리학의 응용에 관심을 갖고 1990년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펴낸 김광수 교수(57, 한신대 철학과)가 고등

학생들을 독자로 하는 《증명과 설명》·《탐구의 논리》(철학과현실사)를 출간했다.

“대학입시에 논술이 채택된 것은 사회가 합리성과 민주성을 추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문에서뿐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게 된 것이지요.”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논리교육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입시특수를 노린 논술장사꾼이었다. 이들은 논술교육을 ‘일정한 틀을 가진 글쓰기의 연습’으로 왜곡했다.

김교수는 《한겨레신문》과 계간 《철학과 현실》에 연재했던 청소년 논리교실을 모아 이번 책을 펴내면서 논리교육의 제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논리교육은 삶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논리교육은 민주적 인간을 길러내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이번에 펴낸 책은 슬기와 바우 두 청소년과 철학교수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교과서와 신문사설 등에서 뽑은 문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청소년 독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전진국에서는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국민기본교육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뤄집니다.”

김광수 교수는 학교의 논리교육을 위해 선생님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96년말부터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교사들을 대상으로 《논리·논술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현주 기자